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충현기도원, 여름 산상성회 개최

8월 9~13일, 김창인, 나겸일, 유창무 목사 강사로

충현기도원은 오는 8월9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3박4일간 기도원에서 여름산상성회를 열기로 했다. 모든 교회학교가 여름수련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신앙자세를 확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반해 일반 성인들을 위한 여름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인데 금번 산상성회는 그런면에서 일반 성인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8월 9일(월) 저녁부터 숙식을 하며 13일(금) 새벽까지 모일 산상성회는 새벽 4시 30분, 낮 11시, 저녁 8시에 진행되는데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나겸일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유창무 목사(충현기도

원)로 9, 10일은 김창인 원로목사가, 11일은 유창무 목사가, 12일은 나겸일 목사가 저녁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교통편은 집회 기간 중에는 충현교회당에서 오전 9~10시, 오후 6~7시 사이에 버스가 계속적으로 출발하게 되고 새벽, 낮, 저녁 집회가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할 사람은 서울→성남→광주→이천 방향(초월 농협앞), 대전중부고속도로→곤지암→광주방향(초월농협앞), 수원→광주→이천 방향(초월농협앞)을 이용하면 된다.

제2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

모든 준비 마치고 내일 출국

8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 주강사로 저녁 부흥회 인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제2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를 위해 주로 우리교회 청년, 대학부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내일(8월2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 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되며 한번은 한국에서 한번은 일본에서 실시되는데 지난 1회 대회가 한국에서 치루어 졌기에 이번에는 일본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대학생, 청년들이 신앙의 교류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재현신과 복음전과 훈련을 하는 일들을 한다.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비롯하여

김양홍 목사, 김학진 목사(동원교회 당회장), 일본측의 오가무라 마타오, 요시무라 아키라, 세이노 가즈히코, 이시카와 고지, 시모가와 도모야 목사 등이다. 신성종 목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8월 4~6일) 저녁 부흥회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50명, 일본에서는 60명의 남녀 대학생, 청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제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동참함으로 이번 대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를 맺고 끝날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선교현지 훈련

성경학교 및 부흥회로, 7월 26일 ~ 8월 3일

선교연구원(원장 김천재 장로)은 선교연구원생의 선교현지 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선교부로 현지훈련을 떠났다.

선교연구원생들이 해외선교연구 훈련을 통해 선교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자신들이 배우는 선교이론들을 실천하며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파송을 대비키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선교현지훈련은 이종국 장로를 단장으로 19명(남 9명, 여 10명)이 지난 월요일(7월 26일) 출국했다.

선교현지훈련원은 7월 27 ~ 30일까지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에서 저녁시간에 부흥회를 실시한다. 또한 낮에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초, 중, 고등부 학생을 대상

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게 된다. 성경학교 및 부흥회의 강사는 선교위원회 지도인 김양홍 목사이다.

7월31일(토)에는 인도네시아 선교현장을 서만수 선교사의 인도로 선교지를 탐방하며 원주민 선교의 실상을 보게 되고 8월1일(주일)에는 주일예배를 참석하고 8월2일(월)에는 현지 개척교회를 탐방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번 선교연구원생 현지훈련은 처음 있는 일이다. 로 이번 훈련을 계기로 활발하게 현지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선교적 관심들이 고조되어 전 교인이 선교에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

93년도 하기농어촌 전도대 파송예배가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드려졌다. 8월2~5일(1차), 8월 9~12일(2차) 총 17개팀의 300여명이 전국의 농어촌 지역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어린이성경학교를 도와줄 예정이다. (사진 / 이승철 집사)

□ 충현 40년의 의미 □

하나님이 동행하신 역사



송 환 창
(장로, 사랑부 부장)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요 16:32)

어느 성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쯤 꿈을 꾸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하늘기에 흘러간 세월,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마치 영화필름처럼 영상으로 비쳐지는데 그 아래 하얀 모래밭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뚜렷이 찍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발자국이 간간히 끊어지면서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그가 가장 힘들어하고 병들고 좌절에 빠져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건만 어찌하여 내가 가장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

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충현의 짧지않은 세월속에도 많은 가난과 시련이 있었다. 새 성전 대지를 구입하고 학교용지 지정을 해체받기까지의 기도의 시간들,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수고의 시간들, 준공까지의 눈물과 땀의 시간들, 먹구름이 덮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암흑의 시간들, 그러나 그 많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니 충현 40년이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렐루야!!

오 늘 본문의 말씀은 22-23절과 24-27절로 내용이 크게 구분됩니다. 먼저 22-23절에는 우리 예수님께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변화산 이후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24-27절에 나오는 성전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세금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

본문 24절 이하에 성전세를 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일종의 생명의 축전을 뜻하는 세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들은 바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수는 일인당 반세겔씩입니다. 세겔은 은으로 되어진 돈인데 우리 나라의 500원짜리 만합니다. 이 세겔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을 온 30세겔에 판 것을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세를 예수님은 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성경 밑에 보면 '혹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낸다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오해케 한다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스캔들인데 우리는 남녀 관계에 이상한 추문이 퍼질 때 그것을스캔들이라고 합니다만 원문의 뜻은 원문의 뜻은 남녀관계,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 사람들 앞에 말썽이 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구설수가 되는 것을 전부 다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내셔도 되는데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넘여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금을 내셨고, 또 하나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방법과 그 교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때에 참 별난 방법으로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낚시질을 하게 해서 제일 먼저 잡혀올린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만물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신 예수님은 부자 중의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들이 부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중용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서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꼭 한 세겔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고기 입에서부터 한 세겔이 아니라 많은 세겔들, 많은 돈들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도 저축을 하고, 주식도 좀 사고, 여유가 있으면 땅도 좀 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충헌장단



세금에 대한 성도의 자세 (마 17:22-27)



신성종

<목사·당회장>

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처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은 다 남을 돕는 기적이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까지도 우리 예수님은돌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세상에 살면서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란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란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세금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화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3 세금을 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이조 500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탐관오리들에게 가렴주구(苛徵聚求)를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제 때에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 내는 법을 잘 연구해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의 교계에서 과연 교역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교역자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역자도 그 나

라의 국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교회 가운데서 세금을 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락교회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물론 우리 충헌교회도 냅니다. 또한 순복음중앙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그밖의 몇 군데가 더 있을 줄 압니다만 거의 대부분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나라의 세금에 관한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금을 낸 것 가운데서 지금 십일조나, 주일헌금, 건축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교역자가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라 그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약간 법에 반영되어서 5%까지 즉 년 50만원이하까지는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반영시킨 다음에 교역자들도 세금을 다 물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인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헌금을 하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인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 안전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밋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결핍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

글

사람의 얼굴은 그의 성격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도 알아내고, 인격도 알아낸다. 이처럼 얼굴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첫째는 부모가 주신 얼굴로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얼굴은 중년이 되기까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얼굴이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고 내각으로 세우려고 누구를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링컨은 그를 보자 아무말도 않고 그냥 뿌리쳤다.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나야 사실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과연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글 / 신성종 목사

미주선교찬양여행을 다녀와서(2)

뉴욕 할렐루야대회

목사님을 향해 오직 한 곳으로 모이는
그들의 눈빛이 뜨겁다.

원 용 숙

(집사, 아멘 찬양대원)



6월 29일, 나이아가라폭포 관광에 나섰다. 500만년전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되었다는 폭포는 정말 대단했다. 아름답다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거대하게 쏟아지는 폭포 뒤에 서린 무지개를 보며 주님의 오묘하심을 다시한번 느껴 본다. 주님의 숨겨진 정말 놀랐다. 유람선을 타고 폭포 가까이 갔다. 물이 떨어지며 위로 솟구치는 물보라가 1 Km나 된다니 그 낙차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우리를 태운 다섯 대의 버스는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섰다. 토론토를 향하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화분으로 장식한 한 예쁜 집들이 대부분이어서 동화나라에 온 듯 했다. 길으로는 별 차장을 얹은 듯이 보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치장한다는 안내원의 말에 실용성 위주인 이들의 생활감각을 느낄 수가 있었다.

토론토 시내에 들어섰다. 전차가 다니는 길, 여유있어 보인다. 토론토 시내관광을 마치고 하버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우리들은 토론토 외곽에 있는 토론토 음악교회를 찾았다. 반가히 맞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충현성전에서 함께 지내던 낯익은 얼굴들이 많았다. 특히 최성림 장로님 내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갈비를 준비해 오셨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먹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찬양을 불렀다. 단복도 조명도 열광하는 박수도 없었지만 고국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뜨거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형제들을 위해 정성껏 찬양을 드렸다. 너댓 차례의 양곡을 마치고 목사님의 뜨거

운 기도가 있는 후 그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종이신 하나님"을 불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이 흐른다. 정말 우리는 한 형제였다.

6월30일, 버스 안에서 햄버거로 아침을 때우고 뉴욕으로 향했다. 미국의 전형적인 시골마을을 지나 왓킨스 글렌계곡의 850계단을 내려온 우리는 잔디밭에서 찬양을 드렸다. "참 아름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관광객이 하나, 둘씩 모인다. 은혜로 가득찬 우리들 표정을 보며 그들도 흥겨워한다. 다시 여정을 시작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미국은 정말 넓고 넓었다. 버팔로에서 뉴욕까지 11시간. 서울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버스 여행이었다.

7월1일, 낮시간 동안 뉴욕 관광을 마치고 퀸즈 칼리지에서 열리는 할렐루야 대회에 참

석했다. "뉴욕을 복음화 하자!"라는 구호아래 찬양과 말씀과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가 14회로 이민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미국 교포사회의 하나의 명맥을 이어오는 큰 모임이었다. 시간이 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앞줄을 채

워 주신 분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었다. 입장하는 우리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는 눈가가 젖어 있다. 수구초심(首邱初心)이라 했던가? 고향을 그리며 마음이 간절함을 달리 표현 할 길이 없다. 신성중 목사님은 인생자체가 영원한 이민생활이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설교 말씀을 주셨다.

목사님을 향해 오직 한 곳으로 모이는 그

들의 눈빛이 뜨겁다.

7월 2일, 목사님 내외분의 전송을 받으며 호텔을 떠났다.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맞는 비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영화 '웨난도'로 유명한 웨난도 계곡을 끼고 달려 루레이 동굴로 향했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루레이 동굴은 아기가 하고 예쁜 모양의 우리나라의 고수동굴과 다름없었지만 규모나 웅장함은 뛰어났다. 루레이가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유석을 두드려 파이프 울렌 소리를 냈다는 광장 '성당'에서 우리는 찬양을 드렸다.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맡았다는 미국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스러워 했다. 석주에 설치된 쇠붙이에 진동을 가해 자동적으로 석주를 울려 나오는 석주파이프 울렌으로 연주되는 '오! 웨난도'는 신비스러웠다.

웨난도 계곡을 따라 달린 버스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후리웨이로 접어들었다. 워싱턴은 빗줄기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은 주일 예배시간에 헌금을 드린 후 원로목사님께서 봉헌기도를 드리실 때 빠짐없이 하시는 기도이다. 나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교회의 재정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백번 동감하며 동시에 중책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 속에는 '일전도 아껴 써야 한다', '일전도 필요없는데 써서는 안된다', '일전도 계산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헌금을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일까? 첫째, 일반성도 입장에서, 둘째는 교회집사로서, 셋째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에 나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전을 비롯한 교회 모든 건물은 어느 재원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피땀어린 정성으로 바쳐진 헌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비롯한 교회 모든 건물과 교회의 모든 시설과 비품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아껴야 합니다.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봉사관의 문 하나하나를 열고 닫을 때, 식당이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 긴급제언 ●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도록

김 영 개

(정보, 재정위원회 위원장)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마이크 등 모든 비품을 다룰 때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성있게 써야합니다. 교회의 전기 한 등이라도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교회헌금을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와 교회학교는 성도들이 교회 모든 건물과 시설과 비품을 아낄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육에 더 힘써야 될줄로 압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과 비품관리를 계획성있게 면밀히 하여 건물과 시설의 수리비를 감축

하며 비품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각 위원회를 비롯하여 교회 돈을 쓰는 부서에서는 돈을 쓰기전에 미리 재삼 검토하여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조심성있게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추후라도 즉흥적이거나 과시적이거나 과다하게 쓰여서는 안됩니다.

셋째, 교회돈을 쓰는 실무자들은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①물품을 구입할 때는 두 곳 이상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으로 해야한다.

②어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각 위원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사무국 조달과를 경유하여야 한다.

④수입 지출이 생겼을 때는 곧 장부(원장금전출납부)에 기입해야 한다.

⑤매달 시산표를 작성하여 자체검증을 하며 교회 감사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하여 우리 교회는 거룩한 헌금을 일전도 잘못쓰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나아가서 사치와 과소비에 물들은 이 나라 백성에게 각성을 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막소식

- ◆ 할렐루야 찬양대는 8월2, 3일 동해안 화진포에서 모임을 갖는다. 회비는 20,000원이다.
- ◆ 유치부에서는 성경퀴즈대회를 8월22일 개최한다.

- ◆ 초등1부는 내년도에 더욱 알찬 성경학교를 위하여 오늘(8/1) '93 여름성경학교 평가회를 하고 다음주(8/8)에는 글짓기 대회를 연다.
- ◆ 초등4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생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은 8월말까지 마가복음 전장을 써오며 선생님들은 요한복음을 써오기로 했다.
- ◆ 중등3부는 8월 5일(목)~8월 7일(토)까지

충현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로는 정연해 목사, 유창무 목사, 손중국 목사이다. 성경묵상 훈련, 이성교제, 진로 문제 등을 다루는 특강시간도 있다. 오늘(8/1)은 수련회 준비 교사전체 기도회가 기도원에서 있다.

◆ 고등부는 지난주일 아멘홀에서 일일 충현서점을 열었으며 성극부실에서 3일부터 출석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다.

◆ 장년2부는 8월13일~14일 제15회 하기수련회를 충현기도원에서 갖는다. 강사로는 유창무 목사, 윤삼중 강도사이다.

◆ 장년4부는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의 60대의 위치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다. 장소는 교육관 307호, 시간은 12시 30분부터이며, 강사는 전호진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학박사)이다.

또 장년4부의 여름수련회가 8월 17(화)~18(수)일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종대 목사와 정규남 목사이다.

◆ 소망부의 수련회가 8월 19일(목)~20(금)에 갈릴리홀에서 있으며, 지난주일에 실시한 성경퀴즈대회의 시상식이 오늘 있다.

◆ 에바다부(성인반)의 수련회가 8월29일(월)~4일(수)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주제로 모인다. 강사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실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경비직(남·여) : 50세 전후의 몸과 마음이 건전한 성도
2. 사무직(남·여) : 상고를 졸업한 30세 전후의 남자로써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필자

*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써 본교인은 교구목사 추천서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세례교인 증명서·이력서(사진첨부) 제출요망

* 제출처 :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 402)

는 김성윤 목사, 이준우 전도사이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 수리남

안식령 선교사님이 사역해왔고 김창수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수리남은 인구 40만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화란어이지만 스페인어가 사용되기도하고 이 나라의 특징상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인디언 언어, 흑인들이 사용하는 따끼따기, 중국어, 유대인 언어, 레바논 사람들의 언어, 인도어, 인도네시아어 등이 사용되며, 유럽인들이 많이 거주하기에 유럽의 언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나라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중국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는 국교가 수립된 상태였으나 지난 6월 30일부로 한국대사관이 물러간 실정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을 보면 외향선박이 드나들므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편들이 배를 타고 나가 있는 동안에 여자들의 도박이 심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사역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향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우잡이를 하는

배가 한번 들어오면 두 세달씩 머무르게 되는데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교육 수준을 돕기 위해서 야학을 개설하기도 하며, 원주민을 향한 복음전파의 사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힘든 것은 모기와 싸움이 라고 합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은 긁으면 피가 나고 피가 난 후의 상처는 경우에 따라서 몇 년씩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리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도제목

1. 안식령 선교사님의 안식년 동안의 언어 훈련과 새로운 계획들이 은혜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2. 김창수 목사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공부, 노방전도, 원주민 전도, 선원선교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 김창수 목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현직적응, 언어훈련을 위해서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나를 변화시킨 훌륭한 설교말씀

김 유 진 (초등6부 사랑9반)

"이와 같은 때에"

찬양을 하는 시간의 성어 롱 대원들 울동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내가 정말 성령충만을 받았나봐!

교회를 다닌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난 사실 깊은 은혜를 받지 못했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기도시간에도 잠난치고, 예배 끝나고 불반공부 시간에도 떠드느라 정신없는 등등....

그러나 이번 1박2일의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특히 김창원 원로목사님의 연합부흥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넘쳤다. 실감나는 훌륭한 설교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찬양을 할 때도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크게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이다.

남을 시샘하기만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부끄러운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이라도 은혜스럽고 사랑스럽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어려울 때나 기쁠때나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싶다.

할렐루야 주님을 언제나 찬양합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신성종 목사 : 8월 4일(수) - 6일(금) 제2회 한일 기독교 청년 미래지도자 대회 강의

2.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제2차 한일 기독교 청년 미래지도자 대회에 세우신 강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시며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소서.
4. 성령의 능력이 놓여준 전도대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5. 각 교회학교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고마운 나라, 한국을 떠나면서

나지르 라자(Nagir Raja)



제가 1990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좋은 공부를 하고,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만나게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결혼을 하였고 지난해 말 예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한국식으로 천화(Faith Flower)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또 교육수준이 매우 높고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아 참으로 부러운 나라입니다. 특별히 충현교회에서 배풀어주시는 장학의 혜택과 여러 형제 자매님의 따뜻한 도움으로 충현대학원 과정을 모두 잘마치고 저의 나라 파키스탄을 향해 떠나면서 마음을 다해 모든 성도님과 당회장 신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파키스탄 교육선교를 위해 저의 일생을 바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대학원 논문 제목을 '교육을 통한 파키스탄 선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국에 돌아가는 대로 이미 시작된 기독교 국민학교 건축을 완성하고 낮에는 어린 학생들을, 밤에는 어른들을 가르치며 선교를 할 계획입니다. 주일 낮에는 학교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의 나라는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교에 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습니다. 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충현교회 성도님 그동안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나지르 라자 형제는 파키스탄에서 유학하면서 신학공부를 했으며 그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했고 영어교육부에서 교사를 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